

# 「음주보행」유감

交通事故로 사망한 사람이 1만2천3백45명이고 약 32만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통계자료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사망자의 99%가 넘는 1만2천2백38명이 운전자의 교통법규위반으로 죽음을 이뤘다는 통계는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 것인가? 더군다나 운전자의 약 45%가 음주운전의 경험자로 나타나 있는 것은 더욱 놀라운 사실이다. 飲酒運轉 문제가 年末의 많은 모임으로 인하여 交通事故의 原因으로 이야기되는 지금 詩人 조지훈(1920~1968)의 酒道에 관한 글이 기억된다. 술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분으로서 酒道의 단계를 18個로 나누어 지적해 준 글에서 술을 알고 아끼고 귀중하게 생각했던 면을 자세히 읽을 수 있다.

못마시지 않으나 안마시는 不酒, 밥맛을 돋우려 마시는 飯酒, 이익이 생겨야 술을 사는 商酒, 취미로 마시는 愛酒, 즐기며 유유자적 더불어 마시는 樂酒, 즐기되 이미 마실수 없는 觀酒, 술로 인하여 이미 다른 세상으로 떠나게된 상태에 이른 廢酒(涅槃酒)의 境地까지 자세히 기술해 주므로 술을 마시는 水準의 차이를 엿볼수 있다.

겨울에 포장마차에서 큰소리로 떠들며 마시다 얼음이 언 땅



尹 興 烈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에다 방뇨를 하며 귀로는 방뇨 소리, 눈으로는 피어나는 증기, 몸으로는 배설의 기쁨을 나누는 동안 머리속으로는 공중도덕을 어긴다는 죄책감을 느낀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는 酒道에 있어 어느 水準에 속하나?

車を 갖고 운전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심각하게 社會的 關心의 對象이지만 飲酒보행자에 대해서는 전혀 無關心 狀態이다. 다른 나라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길거리를 걷거나, 사람이 몰리는 장소에 가서 느끼는 것은 술취한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음주를 한 사람들 뜻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서 술취한 느낌을 준다는 것이다. 즉 옆의 사람을 건드리고도 미안하다는 느낌이 없는 행동, 필요이상으로 큰소리로 말하는 모습 등에서 음주한 사람의 형태를 본다. 세계의 큰도시인 뉴욕, 파리, 동경등과 함께 세계적 도시인 서울은 작은 면적에 많은 시민이 생활을 하고 있다고 감안해도 공동생활을 하는 시민의식은 정상이 아니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現代生活의 특징중의 하나는 空間을 서로 나누어 쓰는데도 있다고 본다. 작게는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시작해서 「버스」, 「기차」, 「비행기」, 「식당」, 「강당」, 「큰 빌딩」, 「목욕탕」, 「공원」, 「산」, 「바다」, 「우리나라」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간을 함께 같이 나누어 활용하고 있다. 술 한잔도 안마시고 술취한 사람처럼 필요이상 크게 말하고, 옆의 사람을 건드리고, 아무데나 침뱉고, 쓰레기를 버리고 하는 행동은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99%가 운전자의 교통법규위반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는 통계의 근본을 이야기한다고 본다.

나는 이와같이 飲酒보행인과 같은 우리나라 사람의 습관을 바꾸는 길은 「生活의 科學化」에 있다고 본다.

광화문 네거리에 소리(자동차 소음)를 측정하여 알려주는 현광판이 있다. 소리의 듣기를 측정하는 「데시벨」로 표시되는 바 보통 76데시벨로 나타날 때가 많다. 음성청취 가능거리를 1m~1.5m로 볼 때 정상적인 말소리가 40데시벨, 오케스트라의 최고음이 80데시벨, 시끄러운 차소리(轟音)가 70데시벨로 알려진바 큰 도시는 소리공해 속에 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나는 우리나라 어느 도시를 가든지 그 도시의 시민문화수준을 자동차 경적소리로 판단하곤 한다. 1년에 몇번씩 가는 도시에선 자동차 경적소리의 변화를 보고 기뻐하고 슬퍼하기도 한다. 또 그 도시시민들의 대화하는 목소리를 시민의식의

정도를 파악하는 기준으로 나 나름대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말은 길이에 차이가 있는 말이지 말의 높이가 다른 기준이 되는 말이 아닌것 같다.

우리가 대화를 넓히고 많은 남의 의견을 듣는 생활태도와 함께 입에서 냄새나는(口臭) 문제에 대해서도 현대생활인이 알아야 될 일중에 하나이다. 입냄새는 치아에 생기는 충치와 잇몸에 발생하는 잇몸질환(치주병)이 주된 원인으로 음식섭취로 인한 냄새는 일시적이지만 이를 자주 닦도록 해야 되고 입냄새는 치과검사를 규칙적으로 하여 충치와 특히 잇몸질환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본다. 치료보다는 예방이 생활화되어야 한다는 가장 좋은 예가 입냄새라고 생각된다.

싸우지 않는데도 화난 목소리로 떠드는 사람, 작은 공간에서 입냄새를 풍기며 냄새공해를 일으키는 일, 술 취하지 않았는데도 술취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現代社會의 文化空間을 같이 나눌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과학과 기술이 선택이나 양자택일이 아니라 조화된 상태로 생활화 되기를 바라며 市民精神속에 科學人의 生活이 實踐되도록 努力하는 것이 先進化의 또 다른 길이라고 確信한다.